

 POSRI 보고서

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한 나이지리아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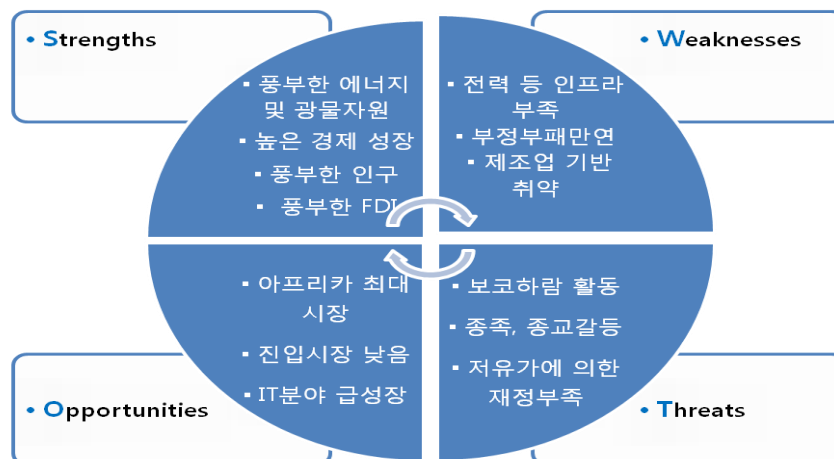
[목 차]

1.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
2. SWOT 분석을 통한 진출전략
3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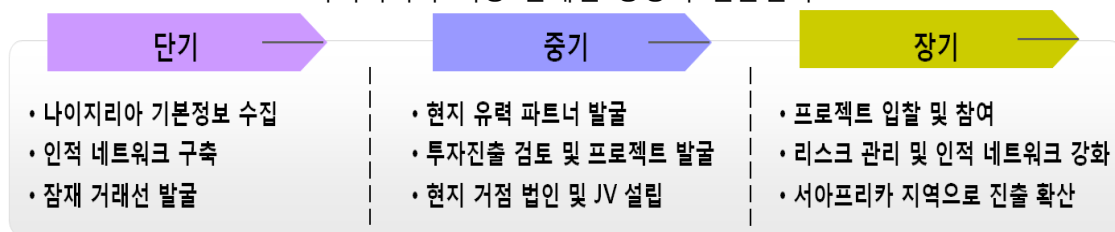
- 아프리카 최대 인구 및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독립 이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룸에 따라 정치, 경제 발전 가속화 전망
 - 아프리카 Country Marketing 진출 대상국으로 적합한 나이지리아는 2014년 이후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시장으로 부상
 - 반면, 나이지리아는 ‘보코하람’과 같은 테러집단의 활동에 의한 정치, 사회 불안과 세계 최하위 수준의 부패지수 및 사업 용이성 등 진출 리스크도 큼
- 따라서 나이지리아 진출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요소가 무엇인지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대비해야 함

<나이지리아 진출을 위한 SWOT 분석>



- 나이지리아 진출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에너지 자원개발과 관련한 건설·플랜트 시장을, 장기적으로는 많은 인구와 높은 소득증가를 염두에 둔 소비재 시장 분야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함
 - 단계별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등 철저한 준비 통해 진출해야 함

<나이지리아 시장 단계별 중장기 진출전략>



- 또한 나이지리아 진출을 위해서는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 필수
- 이밖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마련 차원에서 현지에 법인 및 현지인과의 JV 설립 필요

1.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

□ 지난 3월 28~29일 실시된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독립 이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

- 이번 선거에서 야당후보 무함마드 부하리는 52.4%의 득표로 현 대통령인 조너선을 누르고 당선되어 5월 29일 대통령으로 취임
 - 부하리의 당선요인은 군부 출신인 만큼 과격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그의 청렴한 이미지 때문임
 - 나이지리아가 사상 처음으로 가장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선거로 정권교체를 이뤄냄에 따라 정치, 경제적 민주화의 첫걸음을 딛게 됨

□ 아프리카 최대 경제규모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향후 시장 가치에 있어서 아프리카 주요 선도국가임

- 아프리카 최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국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
 - 과거 10년간('05~'14) 연평균 6.6%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, 2014년 경제성장률은 6.7%였으며 2015년에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5%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(World Bank 2015.2월 전망)
 - 또한 아프리카 최대 인프라 발주국으로 나이지리아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, 전력, 석유 및 가스 분야 인프라 개선을 위해 1,130억 달러 투자계획

<나이지리아 주요 지표('14년 기준)>

경제성장률	경제규모	원유매장량	원유생산량	천연가스매장량	인구
6.7%	5,943억불	372억배럴	220만(b/d)	5.25조m ³	1.8억명

- 이러한 특성으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Country Marketing 대상국으로 부상
 - Country Marketing이란 개별 회사가 아닌 여러 계열사의 장점을 한데 묶어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그룹들 중 Country Marketing 진출의 선두주자인 삼성은 Country Marketing 1호 국가로 베트남을 선정하고 정보기술(IT)·조선·도시개발 등 산업 전 분야에 진출하고 있음
-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정치, 사회적으로 여전히 불안정하며 국가 리스크, 부패지수 그리고 사업 용이성 등이 세계 최하위 수준
 - 특히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'보코 하람'에 의한 테러활동 빈발은 나이지리아의 정치, 사회 불안정을 고조시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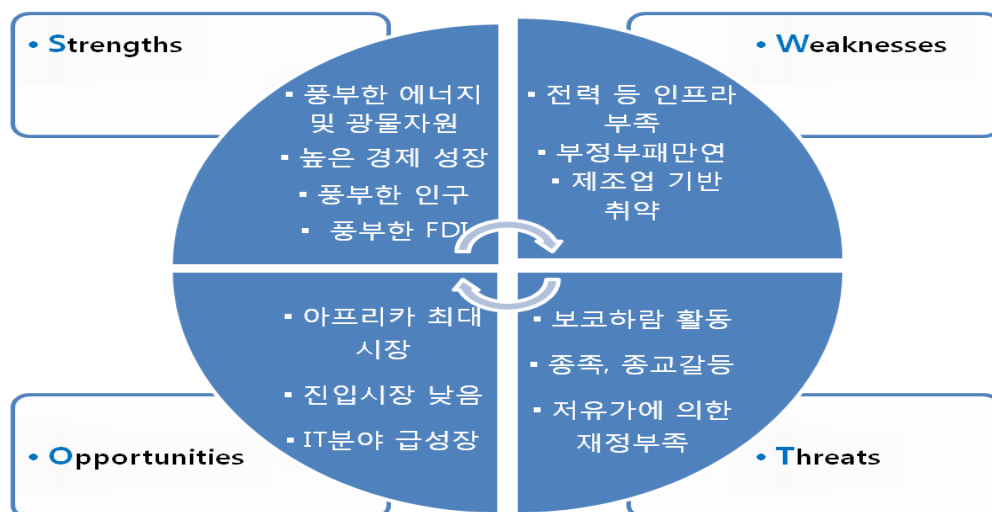
- 또한 최근의 유가급락으로 경상 및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정치, 경제불안의 복병이 되고 있음

2. SWOT 분석을 통한 진출전략

□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원유 및 천연가스와 세계 7위 규모 인구 보유 등으로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, 정치 및 경제적으로 많은 리스크도 존재함

- 따라서 나이지리아 진출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요소가 무엇 인지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대비해야 함

<나이지리아 진출을 위한 SWOT 분석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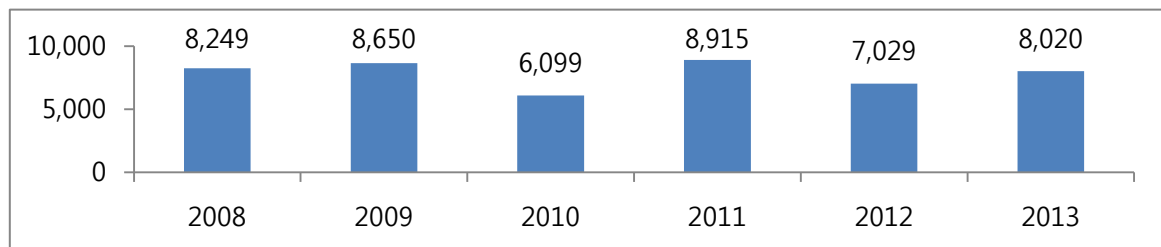
□ **장점(Strengths): 풍부한 자원과 인구,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FDI의 지속적 유입 증가**

○ **풍부한 자원:** 원유매장량 세계 12위,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9위 차지

- 원유 생산은 세계 10위로 아프리카 최대 생산국이며, 천연가스 역시 세계 9위 이자 아프리카 최대 생산국임
 - 원유 및 천연가스는 나이지리아 전체 수출의 70%, 재정의 90% 이상을 담당
- 에너지 자원 이외, 철광석 및 석탄자원 풍부
 - 철광석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약 30억 톤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, 석탄 역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약 27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연간 약 100만톤 생산

- 높은 경제성장률: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연 6% 이상 고성장
 -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9년 4.7% 성장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매년 6% 이상 성장
 - 유가가 2015년 3월 현재 지난해 상반기 평균 유가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, 2015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6.7% 성장에서 5% 성장전망으로 하향 조정
- 높은 소비증가율: 아프리카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2014년 현재 약 1.8억 명에 달하며 소비증가율은 10.2%에 달함(2013년 기준, Mckinsey)
 -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(2013), 나이지리아 인구는 현재의 1.8억명에서 2030년 2.7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
 - 맥킨지는 2030년 1인당 소득 7,500달러 이상 가구가 50%에 달하고 소비재 매출도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
- 풍부한 FDI 유입: 아프리카 최대 FDI 유입국으로 2013년도 약 80억 달러가 유입됨
 - 對 나이지리아 FDI는 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으며, 주요 투자국은 미국, EU, 중국 등임

<나이지리아 최근 FDI 유입현황(백만 달러)>



자료 : UNCTAD, World Investment Directory, '14

□ 약점(Weaknesses): 전력 등 인프라부족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만연

- 인프라 부족: 나이지리아의 전기공급 능력은 30%에 미치지 못하며 도로 포장률 역시 30% 수준에 머무는 등 인프라 부족이 국가발전의 최대 걸림돌
 - '2020년 20대 경제대국'(Vision20: 2020)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력, 교통 등 인프라 부족문제를 선결해야 함
 - 2014년 11월 나이지리아와 중국은 1,400km의 철도건설을 위한 120억 달러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 합의
- 부정부패 만연: 원유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챙기는 정부고위 관료 및 외국 메이저기업들로 인해 나이지리아 전체 국민의 70%는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

- 나이지리아의 2013년 기준 부패지수는 세계 181개국 중 144위로 하위권
 - 최근 나이지리아 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파 ‘보코하람’의 탄생 원인 역시 나이지리아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경제적 차별의 산물
- 제조업 기반 취약: 나이지리아는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% 내외로 미미한 수준
 - 제조업도 대부분 정제 등 석유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 산업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음

□ 기회(Opportunities): 아프리카 최대시장으로서의 가치와 IT분야의 급성장 등에 의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

- 아프리카 최대 시장: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최근 중산층 확대 및 도시화 진전에 따라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
 - 나이지리아는 2014년 GDP 5,940억 달러로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. 2015년에는 6,370억 달러로 예상됨
 - 특히 세계 7위의 인구규모를 지니고 있어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며 임금 인상률도 높아 향후 내수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
- 진입시장 용이: 나이지리아 정부는 투자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율 통제규제를 철폐
 - 또한 나이지리아로부터의 투자회수를 위한 송금이나 자본 이전도 보장하고 있음
 - 다양한 산업분야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출가공지대 설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업체 등록 및 승인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
- IT분야 급성장: 나이지리아 정부는 과도한 에너지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IT 산업 성장을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음
 - 나이지리아 모바일 가입자, 2013년 말 기준 약 1억 3천만 명
 - 2017년까지 인터넷 광대역 사용자 점유율을 현재 6%에서 30%까지 다섯 배 늘리겠다는 목표 설정
 - 나이지리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약 1조 나이라(약 500억 달러) 규모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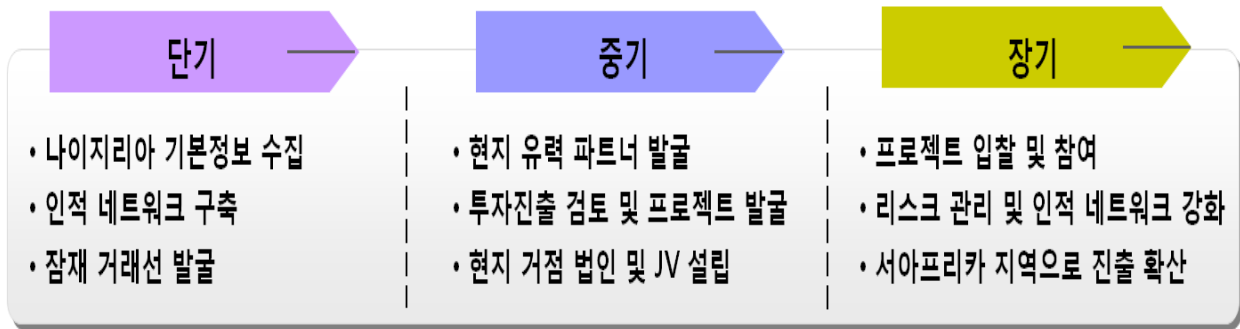
□ 위협(Threats): 극단적 과격 테러집단인 보코하람 활동강화와 종족 및 종교갈등에 의한 정치, 사회불안

- ‘보코하람’ 활동: 극단적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지역을 장악하고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나이지리아의 정치 및 사회불안 야기
 - 보코하람의 테러로 지난 1년간 약 1만명의 사망자 및 200만명 난민 발생
 - 최근 차드, 니제르, 카메룬으로 구성된 연합군과 나이지리아군의 합동작전을 통해 보코하람 세력을 토벌하고 있으나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할 전망
 - ‘서양식 교육은 죄악’이라는 의미를 가진 ‘보코하람’은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경제적 빈부격차와 종교 문제로 등장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에 대항하고 있음
- 종족·종교 갈등: 종족 및 종교간 갈등으로 해마다 수천명의 사망자 발생
 - 250여개 종족으로 구성된 나이지리아는 정치, 사회적으로 종족간 갈등이 빈발하여 과거 쿠데타 발생(총 7회)의 주 요인이었음
 - 또한 북부의 이슬람(약 50%)과 남부의 기독교(약 40%)간의 갈등으로 해마다 수 천명이 테러로 인해 사망함
 - 특히 지역간 빈부격차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, 남부지역은 석유개발로 비교적 부유하나 북부지역은 빈곤층이 많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
- 저유가에 의한 재정부족: 2014년 중순 이후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
 - 나이지리아는 원유수출이 전체 재정수입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급락은 국가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
 -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수립을 위한 벤치마크(기준 유가)를 배럴당 78달러로 설정한 바 있으나, 최근 원유가 하락으로 78달러→65달러로 하향 조정
 - 수정한 기준유가 보다 현재의 유가(3.30일 기준 54달러) 수준이 낮아 재정적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

□ 나이지리아 진출 전략: 나이지리아 경제환경 고려시 중단기적으로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한 건설·플랜트시장을, 장기적으로는 풍부한 인구와 높은 소득증가를 염두에 둔 소비재 시장 분야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함

- 그러나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테러 등의 불안한 치안, 그리고 전력·금융 등의 낙후된 인프라 리스크가 있음
- 따라서 나이지리아 진출을 위해서는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

<나이지리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>



○ 나이지리아 진출을 위해서는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확보 필수

- 특히, 건설 플랜트 분야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(Key man) 확보가 사업수주 및 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
- 나이지리아의 주요 건설, 플랜트 발주는 석유광물부 및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 (NNPC) 고위 인사의 손에 달려있어 이들에 대한 인맥 관리 필요

○ 초기 안정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ODA, EDCF 등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교두보 마련 전략 필요

- 한국, 2014년 기준 나이지리아 EDCF 제공금액은 2천5백만 달러로 전체 금액의 0.16% 차지. ODA의 경우 2010년까지 총 1천만 달러 제공

○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마련 차원에서 현지에 법인 및 현지인과의 JV 설립 필요

- 현지 기업과 상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소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신뢰를 쌓고 점차적으로 프로젝트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함
- 현지업체와 협력을 통한 진출은 무엇보다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공사 발주정보, 인력 및 장비공급, 행정처리 등 제반 문제를 합작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
3. 시사점

□ 보코 하람의 발호와 저유가는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부정적 요인들로 나이지리아 진출시 수시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임

- 특히 저유가 영향으로 건설·플랜트 발주가 지연되거나 철회되는 사례 발생
-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기사건 사례들도 악명 높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진출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임

- ‘419’ 사기로 유명한 메일이나 팩스에 의한 ‘나이지리아 사기’와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중고 철도 매각과 같은 무역 사기에 이르기까지 사기 극성

□ 일부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시장이며, 향후 개발도상국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

- 풍부한 자원과 인구는 나이지리아 내수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유인하고 있으며 FDI 역시 지속적 증가를 보이고 있음
 -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은 나이지리아를 멕시코, 인도네시아, 터키 등과 함께 민트(MINTs)로 명칭하고 향후 브릭스(BRICS)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
 - 이밖에 나이지리아는 비즈니스 인사이더(Business Insider)가 분류한 새로운 신흥국 MAVINS(멕시코, 호주, 베트남, 인니, 나이지리아, 남아공)로 분류됨

□ 따라서 원활한 나이지리아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이지리아 정부 고위층과의 꾸준한 접촉 및 관계유지도 필요

- 특히 중국 사례처럼 한국-나이지리아 간의 민간부문 협력채널을 통해 양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 창출 필요
 - 중국은 나이지리아-중국 친선협회 및 나이지리아-중국 경제협의회를 통해 중국과 나이지리아 간의 친선 및 비즈니스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
- 금융측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또는 장기 저리 상업차관 지원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해외 플랜트 및 인프라기금 등을 조성하여 우리업체의 파이낸싱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
 - 한국 업체들은 자체 금융조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자본여력이 부족한 우리 업체들로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KOTRA, “2015년 나이지리아 진출전략 보고서”, 2015.4

[홈페이지]

국제금융센터(www.kcif.or.kr)

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(www.icak.or.kr)

KOTRA(www.kotra.or.kr)

UNCTAD(www.unctad.org)

World Bank(www.worldbank.org)